



미 증시, 미-이란 2 주 휴전 합의 속 3대지수 상승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8일(수) 미 증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미국-이란이 2주간 휴전 합의 동의를 가운데 장중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 등 일부 불안정한 모습 보였음에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 전반적으로 개선된 결과 3대 지수는 상승 마감 (다우 +2.85%, S&P500 +2.51%, 나스닥 +2.80%)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통첩 시한을 앞두고 미국-이란은 2주간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조건으로 휴전에 합의. 특히, 금번 휴전 합의는 일시적 성격이 아니라 양측 모두 근본적인 종전 협의를 위해 2주 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에서 유의미. 이에 따라, 미-이란 2주 휴전 협상 소식이 전해지고 난 이후 VIX 지수(-18.3%, 21.0pt) 급락하는 등 글로벌 시장 전반에 걸쳐 위험선호 심리 개선 시그널 포착. 최근 S&P500, 나스닥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전쟁발 악재 민감도 둔화 국면으로 진입. 특히, 이 날 전쟁 이슈로 주가 조정 폭이 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6.3%) 급반등했다는 점은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

다만, 완전한 종전 합의는 아니라는 점에서 향후 협상 결렬 등 전쟁 재점화에 대한 경계감도 여전히 잔존하는 상태. 실제로, 이 날 이란 의회 의장은 레바논 공격, 이란 일부 영공 드론 침입, 이란의 우라늄 농축 권리 부인 등 미국이 합의를 위반한 사례를 언급하며, 휴전 합의 첫 날부터 불안정한 모습 연출. 다만, 이에 미국의 밴스 부통령은 "휴전 시한 동안 소란은 당연하다,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갈등 재고조보다는 협상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는 점은 일부 안도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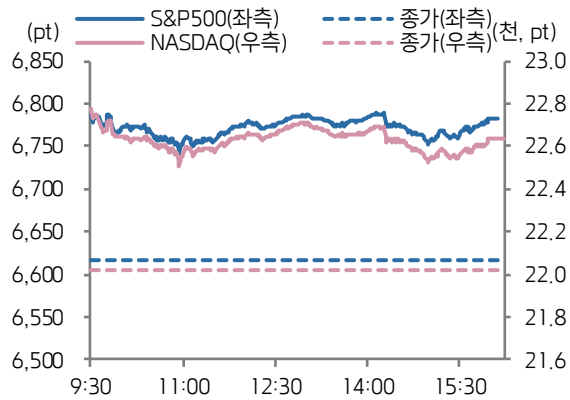
결국, 추후 이란과 미국의 유의미한 협상 진전 여부가 중요. 이란 핵문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방안 등 협상 타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힘든 이슈가 주요 쟁점인 만큼 단기에 극적 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다가오는 11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이란 정부 간 종전을 위한 1차 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일부 스몰딜 형식으로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될지 여부에 주목해볼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이란 간 2주 휴전 및 호르무즈 해협 일시 개방 합의 소식에 전쟁 공포 완화 → 위험선호 심리 개선 영향으로 급등세로 마감. 업종 측면에서는 전쟁 수혜주였던 일부 방산 업종을 제외하고 반도체, 증권, 건설 등 대부분의 업종 반등하며 고른 상승세 연출 (코스피 +6.87%, 코스닥 +5.12%).

금일 국내 증시도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6.3%)를 비롯한 미 반도체주 급등, 전쟁 리스크 정점 통과 인식 속 주도주 중심의 반등세는 이어질 전망. 다만, 전일 급등 속 상승폭은 전일에 비해 다소 제한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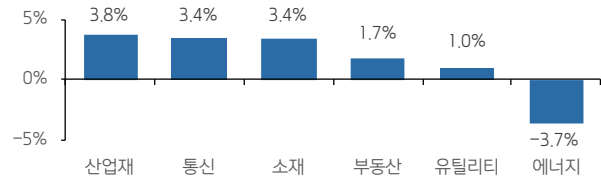
전일 미-이란 휴전 합의 속 주요국 증시 중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라 피해강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었던 한국 (코스피 +6.8%), 일본(니케이225 + 5.4%) 상승폭 가장 컸음. 1차적으로 휴전 합의에 대한 증시 반영은 전일 급등으로 일부 반영되었다고 판단. 증시 방향성 관점에서도 전쟁발 악재 정점 통과 인식 높아진 가운데 실적 시즌 진입하며 실적에 대한 민감도 향후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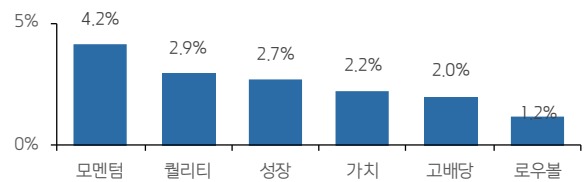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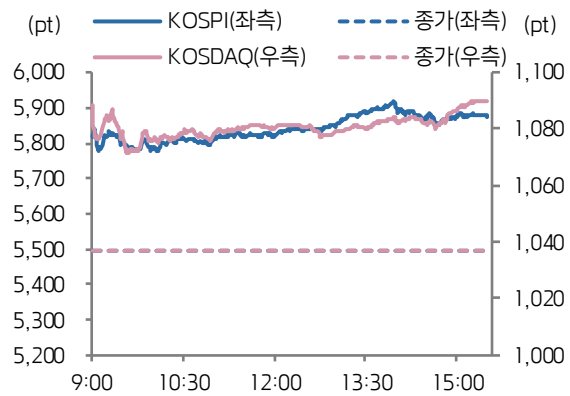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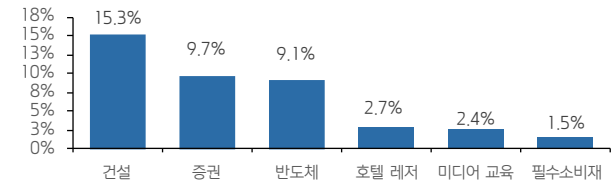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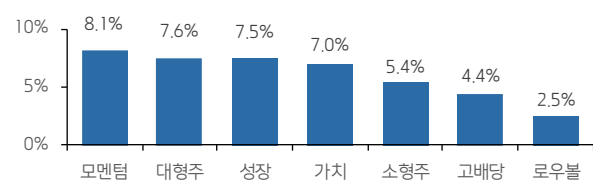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	----	--------	--------	----	----	--------	--------

애플	258.90	+2.13%	-4.77%	GM	76.74	+5.47%	-5.63%
마이크로소프트	374.33	+0.55%	-22.6%	일라이릴리	953.30	+2.39%	-11.29%
알파벳	317.32	+3.88%	+1.38%	월마트	127.26	+3.89%	+14.23%
메타	612.42	+6.5%	-7.22%	JP모건	307.97	+3.55%	-4.42%
아마존	221.25	+3.5%	-4.15%	엑손모빌	156.22	-4.69%	+29.82%
테슬라	343.25	-0.98%	-23.67%	세브론	192.89	-4.29%	+26.56%
엔비디아	182.08	+2.23%	-2.37%	제너럴일렉트릭	127.26	+3.9%	+14.2%
브로드컴	350.63	+4.99%	+1.31%	캐터필러	771.58	+6.51%	+34.69%
AMD	231.82	+4.64%	+8.25%	보잉	217.80	+3.71%	+0.31%
마이크론	406.73	+7.72%	+42.51%	넥스트에라	94.17	+0.5%	+17.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5,872.34	+6.87%	+39.35%	USD/KRW	1,479.20	-1.45%	+2.76%
코스피200	882.81	+7.52%	+45.68%	달러 지수	99.03	-0.83%	+0.71%
코스닥	1,089.85	+5.12%	+17.76%	EUR/USD	1.17	+0.59%	-0.71%
코스닥150	1,880.14	+5.4%	+21.51%	USD/CNH	6.83	-0.33%	-2.05%
S&P500	6,782.81	+2.51%	-0.92%	USD/JPY	158.57	-0.66%	+1.19%
NASDAQ	22,634.99	+2.8%	-2.61%	채권시장			
다우	47,909.92	+2.85%	-0.32%		가격	DTD(bp)	YTD(bp)
VIX	21.04	-18.39%	+40.74%	국고채 3년	3.320	-12.6bp	+36.9bp
러셀2000	2,620.46	+2.97%	+5.58%	국고채 10년	3.632	-12.3bp	+24.7bp
필라. 반도체	8,510.92	+6.34%	+20.16%	미국 국채 2년	3.786	-0.2bp	+31.3bp
다우 운송	20,168.87	+3.23%	+16.2%	미국 국채 10년	4.291	-0.2bp	+12.4bp
상해종합	3,995.00	+2.69%	+0.66%	미국 국채 30년	4.883	+1.2bp	+3.9bp
항생 H	8,677.31	+2.61%	-2.65%	독일 국채 10년	2.944	-14bp	+8.9bp
인도 SENSEX	77,562.90	+3.95%	-8.99%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913.37	+4.97%	+2.11%	WTI	94.41	-16.41%	+65.63%
MSCI 전세계 지수	1,031.05	+3.3%	+1.62%	브렌트유	94.75	-13.29%	+55.71%
MSCI DM 지수	4,327.93	-0.04%	-2.31%	금	4,777.20	+1.97%	+8.4%
MSCI EM 지수	1,459.53	+0.66%	+3.93%	은	75.39	+4.72%	+6.77%
MSCI 한국 ETF	140.07	+10.13%	+44.08%	구리	577.70	+3.85%	+1.67%
디지털화폐				BDI	2,095.00	+1.4%	+11.61%
비트코인	71,378.81	+2.99%	-18.56%	옥수수	447.25	-0.39%	-0.22%
이더리움	2,209.99	+4.49%	-25.78%	밀	580.25	-2.97%	+11.91%
				대두	1,162.00	+0.32%	+9.52%
				커피	289.30	+2.84%	-11.2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4월 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